

## KERI 정책연구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에서 발췌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보험지출 부담 확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인

KERI가 최근 발간한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정책연구 12-1)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지출이 고소득 가구의 1.62배에 달한다는 전년도 정부의 통계는 양극화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험지출의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이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양자를 서로 분리하여 분석할 경우 소득계층 간 사회보험지출 격차 확대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저소득층의 사회보험지출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으며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타당함.
  - 2011년 1/4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지출 부담이 소득 5분위의 1.62배로 2003년 1/4분기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음.
  - 이러한 보도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나 소득계층 간 사회보험부담 격차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함.
    - 사회보험지출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대한 지출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각각 다른 적용기준을 가지고 있음.
- 고소득층 대비 저소득층의 사회보험지출 증가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 가구의 경우, 2007년 이후부터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지출이 소득 5분위 가구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1분위 근로자 가구는 2010년 소득의 2.44%를 사회보험으로 지출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는 2.53%를 지출함.
    - 따라서 소득 5분위 대비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지출 부담비율은 2010년 0.97을 기록

-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지출 부담이 소득 5분위 가구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1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2010년 소득의 4.23%를 사회보험을 위해 지출한 반면 5분위는 2.14%를 지출함.
  - 따라서 소득 5분위 대비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지출 부담비율은 2010년 1.97을 기록

<표 1> 소득 대비 사회보험지출 부담

(단위: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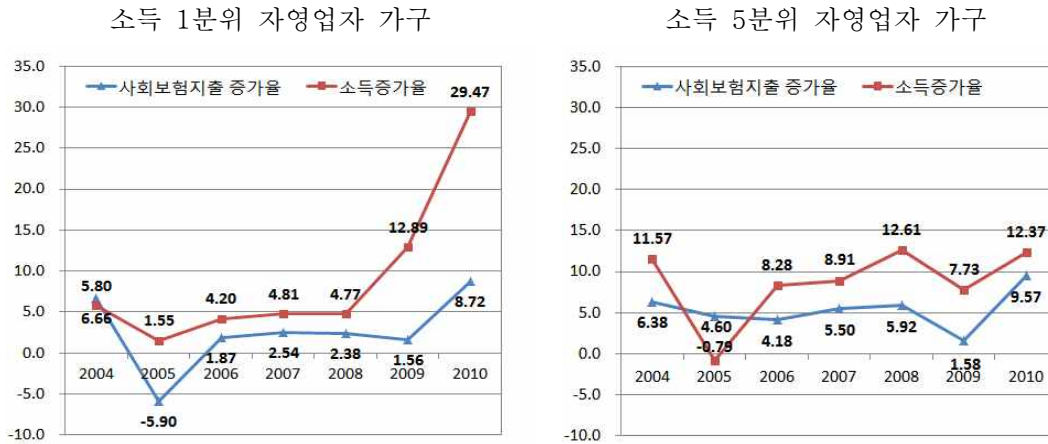
	소득 1분위 (A)			소득 5분위 (B)			5분위 배율 (A/B)		
	전체	근로자	자영업	전체	근로자	자영업	전체	근로자	자영업
2003	2.44	2.09	2.79	1.73	1.76	1.74	1.41	1.19	1.61
2004	2.45	2.07	2.77	1.84	1.85	1.82	1.34	1.12	1.52
2005	2.52	2.11	2.99	1.82	1.88	1.73	1.38	1.12	1.73
2006	2.44	2.05	3.06	1.92	1.98	1.79	1.27	1.04	1.70
2007	2.49	1.98	3.12	2.04	2.14	1.85	1.22	0.92	1.69
2008	2.60	2.09	3.20	2.20	2.27	1.97	1.18	0.92	1.62
2009	2.78	2.32	3.55	2.31	2.41	2.09	1.20	0.96	1.70
2010	3.08	2.44	4.23	2.40	2.53	2.14	1.28	0.97	1.97

자료: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연간 자료, KOSIS (통계청)

-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사회보험지출 부담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05년부터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며 2008년 이후 그 차이는 크게 확대됨.
  - 그 결과 2008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사회보험지출 부담이 고소득 자영업자 가구에 비해 눈에 띄게 확대됨.

<그림 1>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및 사회보험지출 증가율

(단위: %)



자료: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연간 자료, KOSIS (통계청)

□ 자영업자의 소득계층 간 사회보험지출 격차 확대는 영세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회보험가입 확대 추세와 최근 전월세가 상승 현상과 연관이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허용 확대로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지출이 증가됨.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이 허용됨.
  -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주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2005년 이후부터 일부 자영업자와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 편입됨.
  - 따라서 사회보험 가입 허용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의 사회보험지출이 증가했을 개연성이 큼.
- 한편 최근 전월세가의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 자영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음.
  - 근로자에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부과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한계로 인해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산정
  -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을 결정할 때 무주택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무주택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가계소득의 증가가 없더라도 임대보증금 및 월세 상승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음.

- 2006년 이후 전세가격은 200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2010년 한 해 동안 6%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10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32.9%가 무주택 가구이지만 소득 5분위 자영업자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17.5%에 그침.
  - 이처럼 무주택 자영업자 가구가 저소득층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상승은 고소득 자영업자 가구에 비해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최근 소득계층 간 사회보험지출 부담 격차 확대에 대한 지적은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러한 현상은 전월세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증가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사회안전망 편입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